

The 'Veteran' Triangle, Hanwha Eagles Pro Baseball Team

꼴찌 팀 "한화 이글스", 그리고 "야신(野神) 김성근"

²2014년 10월 28일 오후 3시, 대전 한밭야구장

"...(중략)... 내가 하고자 하는 야구는 이겨야 해요. 개개인한테 의존하는 야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줘야 하겠고, 내년 가을에 제일 마지막에 시합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내 작은 한밭 야구장은 환호로 둘러싸였다.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는 1986년 빙그레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하여, 1993년 11월 한화 이글스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후 김성근 감독 취임 이전까지 꾸준하게 인기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빙그레 시절 2번의 우승과 성공적인 구단 홍보로 이뤄낸 좋은 출발과 다르게, 한화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이후에는 단 한차례의 우승도 거머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명장들이 한화의 가을야구와 한국시리즈 트로피를 위해 기용되었으나 과거의 영광과는 반대로 번번이 팀은 하위권에 맴돌며 고배를 마시고 불명예스러운 사퇴를 하는, 일명 "Veteran

¹ 본 사례연구는 2017년 가을학기 '조직학습 :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의 지도하에 권혁진, 안준용, 전재형, 최병훈, 황인제가 작성하였음.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² 위 내용은 당시 김성근 감독의 한화 이글스 부임 과정에 있었던 취임사를 재구성 한 것이다.

Triangle”같은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카우트 및 육성

한화 이글스의 부진은 구단 시스템에 대한 열악한 투자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들어 한화 이글스는 소극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이는 외부 FA³가 거의 없다는 점과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10라운드를 채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Exhibit 1] 또한 제대로 된 2군 훈련장이 없어 선수들의 훈련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키울 선수도 없고 키울 환경도 없는 조건에서 한화 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운도 따르지 않았다. 2011년 이후 서산에 2군 훈련장을 건립하고, 스카우트 팀을 재정비해 의욕적으로 선수 육성에 나섰지만 NC다이노즈, KT 위즈 등 신생팀 창단 시기와 맞물리면서 드래프트에서 번번히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다. 신생 구단에게 전년도 최하위팀 한화보다 우선 지명권이 주어진 탓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한화 이글스는 매번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도 팀을 리빌딩(Re-Building)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는 팀이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발판 없이 계속 하위권에서만 맴도는 결과를 낳았다.

프런트 및 구단운영

KBO의 구단들은 과거부터 “제왕적 감독야구” 하에 시즌을 보내왔다. 그러나 2010년을 분기로 점차 “프런트⁴ 야구”의 분위기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변화 속에서 감독과 프런트의 힘겨루기로 많은 감독과 코치진들이 교체되는 모습이 빈번하게 보여져 왔다. 하지만 한화의 경우 야구와는 거리가 먼 그룹 계열의 실세들이 인사권을 지닌 구단주 자리로 거쳐 가는 양상이며, 기존의 색깔이었던 “제왕적 감독야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한화는 팬층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도 보인다. 팬층이 두터웠던 한화 이글스가 지속적인 부진을 겪으면서 팬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이는 한화 이글스 운영 전반에 관한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프런트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항의와 불만 전화가 넘쳐났고 이글스 팀의 게시판은 매일같이 총성 없는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또한 일부 극성 팬들은 한화 그룹 본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프런트뿐만 아니라 한화 기업의 고위 인사들에게도 어필했다. 이러한 팬들의 움직임은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감독 후보였던 한용덕 전 투수코치와 이정훈 전 타격코치를 제치고 김성근 감독이 선임된 일이 대표적

³ 구단과의 계약이 끝나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수

⁴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Front Desk에서 발생한 단어로 스포츠 구단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구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인 예시였다.

또한 기업 수준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야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한화 이글스의 구단주는 전통적으로 한화 기업들의 실세들만 맡을 수 있는 요직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한화 이글스의 감독을 맡는다는 건 “독이든 성배”를 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김성근 감독 이전의 한화 이글스 : 김인식 감독 (2005 - 2009)

“팀 리빌딩,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김인식 감독 취임 직후의 인터뷰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화 이글스는 준우승 한번을 비롯하여 3년 연속 플레이오프⁵ 진출에 성공한 강팀 이었다. 괴물 신인이라 불린 류현진의 등장과 미국에서 복귀한 구대성, 16승의 투수 문동환 등 뛰어난 투수진과 김태균, 데이비드, 이범호 등 막강 타선이 버티고 있었다. 뛰어난 선수진은 기존 김인식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과 시너지를 발휘했다. 장기적인 성과인 리빌딩이 아닌 현재의 성과를 강조한 김인식 감독의 ‘짜내는’ 야구는 뛰어난 라인업이 더 빛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주요 전력들의 부상과 노령화 및 새로 스카우트한 외인선수들의 부진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 투수진을 이끌었던 문동환, 김해님, 송진우, 구대성, 정민철, 이영우 등의 선수들은 이미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 또한 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되는 4,5번 타자들인 김태균과 이범호의 부상, 외인타자 클락의 무릎 골절 등 갑작스러운 주전선수들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나중을 대비해 발굴해서 키우던 한화 이글스의 뒤를 이을 젊은 선수들이 살인적인 혹사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시로 2008년 젊은 투수였던 마정길은 64경기 92이닝이라는 혹사 이후 다음 시즌부터 출장 이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육성의 요람이 되어야 할 2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1군 선수들이 부상으로 잠시 쉬었다가 오는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기존 한화 이글스의 감독들이 만들어냈던 인재들이 지고 서서히 새로운 인재들로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제대로 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육성의 씨앗조차 제대로 뿌리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듬해인 2009년에는 한화의 간판타자였던 김태균, 이범호가 FA를 선언하고 일본 프로 야구로의 진출을 선언하며 타자 전력의 유출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한화의 긴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⁵ 가을야구 라고도 불리며 상위 4개 팀이 준PO, PO 그리고 한국시리즈를 거쳐 우승팀을 정하게 된다.

김성근 감독 이전의 한화 이글스 : 한대화 감독 (2010 - 2012)

이게 리빌딩이냐? 재창단이지!

-한대화 감독 인터뷰 중

이런 내리막길 속에서 한화가 선택한 감독은 야왕(野王)이라 불리는 한대화 감독이었다. 당시 한화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한화의 주요 투수진들과 타자들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유일하게 괴물 신인 류현진만이 호투를 하며 일명 "현진 이글스"라 불리는 시기가 온 것이다.

당시 리빌딩이 절박했던 시기였지만 한화의 현실은 2군 육성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육성을 위한 전용구장 하나 없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화가 프로팀이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승을 경쟁하였다는 후광 때문에 감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퇴를 해야 하는 압박이 공존했다. 그렇기에 한대화 감독은 리빌딩과 동시에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쳤다. 결국 한대화 감독은 타 구단의 30대 노장 선수들과 한화 이글스의 유망주간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 시기에 한화 프런트의 무능함 또한 극에 달했다. 당시 팀의 주축이었던 송광민이 2010 시즌 도중에 갑자기 입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한화의 프런트는 선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계획 없이 행동하여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당시 한화가 주축 선수들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다. 이러한 관리는 2010년에만 14명이 입대 예정 선수로 분류되고 2012년 22명의 선수가 병역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 있는 참혹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9개 구단 통틀어 최악의 선수관리 시스템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결론적으로 한화 이글스의 전, 현 감독의 리빌딩 실패, 프런트의 무능함 및 모기업의 부족한 지원, 선수들의 부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한화 암흑기가 도래했다. 사실상 리빌딩이 아닌 재창단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한화는 치닫고 있었다.

김성근 감독 이전의 한화 이글스 : 김응용 감독 (2012 - 2014)

한화의 이러한 암흑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망으로 해태시절 거쳐 삼성 라이온즈의 전성기를 이룬 감독인 김응용이 낙점되었다. 김응용 감독이 취임할 당시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LA다저스로 진출하여 투수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지만 트레이드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재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화는 FA로 선수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했고 긴 기간동안 내야수 정근우와 외야수 이용규에 만족해야만 했다. 또한 당시 대세였던 프런트 야구로 인해 한화는 제대로 된 트레이드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화는 김성한, 이종범, 이대진 등 과거 해태를 이끌었던 선수들을 코치로 대거 영입하였다.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았던 코치진들은 불안함과 함께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시즌이 시작되었고, 한화 이글스는 개막 이후 13연패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단기의 성과에 급급했던 김응용 감독은 다시 2년 전 김인식 감독을 연상시키는 혹사야구를 시작했다. 전날 선발투수가 다음날 계투⁶로 올라오는 경우 등의 무분별한 선수기용은 팀의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은 당장의 성적과 리빌딩 모두 얻지 못하고 김응용 감독을 방출하는 시나리오로 끝나게 되었다.

“야신 김성근”

“제 인생이 야구고, 야구가 제 인생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강연 중

야신(野神)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김성근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장 중 한명으로 꼽혔던 감독으로 커리어 내내 한국 프로야구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의 구단에서 1군 감독을 경험했던 베테랑이다. 대부분의 구단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커리어 하이였던 SK와이번스 시절에는 2007년부터 4년간 3번의 한국시리즈 우승과 한번의 준우승을 거둔 이력을 지니고 있다.

김성근 감독은 일본 교토 태생으로, 일본 교토에서 학업을 마치고 일본 사회인 야구 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1960년 동아대학교에 스카우트 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한국 실업 야구에 발을 디게 되었고 1961년에는 한국 대표팀에 선발되어 준우승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혹사로 어깨 부상을 당해 1969년 짧은 선수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된다. 짧은 휴식기를 가지고 바로 마산상고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의 길을 새로 시작했고, 충암고, 신일고 등을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며 성공적인 아마추어 감독으로의 커리어를 쌓게 된다.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1982년 OB베어스의 창단 투수코치로 프로야구 지도자의 첫 걸음을 디게 된다.

1984년 김영덕 감독에 이어 2대 감독으로 취임하게 된 김성근 감독은 OB베어스에서의 5년간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 결국 경질된 김성근 감독은 그 후에 태평양 돌핀스,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등의 구단을 전전하였지만 계속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점점 잊혀지는 듯 하던 김성근 감독은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으로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한다.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1년 창단 이후 단 한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본 적이 없는 자타공인 최고 약체 팀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쌍방울은 김성근을 감독을 임명하면서 스카우트 자본을 4배로 늘리며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진을 보강한 쌍방울 레이더스는 김성근 감독의 지도 하에 구단 사상 최초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낸다. 성공을 바탕으로 쌍방울 레이더스는 더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는 홈 구장 17연승이

⁶ 야구는 흔히 투수 운용에 있어서 선발투수 - 중간계투(또는 불펜) - 마무리 투수의 순서를 가진다

라는 대기록과 함께 3위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듬해 외환위기에 의한 쌍방울의 부도위기로 자금 지원이 대폭 감소했고 다시 구단은 하위권에 맴돌게 된다. 김성근 감독은 경질되며 쌍방울에서의 커리어를 마쳤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과는 다른 구단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LG 트윈스, 지바 롯데 마린즈 등을 거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은 김성근 감독은 2007년 SK 와이번스에 정착했고, 앞서 언급했듯 3번의 우승을 달성한다. 당시에도 상위권 팀이었던 SK 와이번스를 정규리그 1위와 함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올려놓은 김성근 감독은 '야신'이라는 칭호와 함께 2번의 우승 트로피를 더 들어올렸고, 이후 고양 원더스라는 독립구단을 맡으며 새로운 영역에 발자취를 남기는 모험을 한다. 그리고 2014년, 마침내 한화 이글스에 몸을 담게 된다.

김성근의 야구 : 선수단 관리와 선수활용

"나는 강한 훈련만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근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중

김성근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일명 지옥훈련을 시키는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첫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OB베어스에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고, 이는 김성근 감독이 한화 이글스에 올 때까지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졌다. 선수의 역량을 올리는 데에 필요한 훈련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이루어져 선수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많은 선수들이 높은 훈련의 강도를 힘들어 했고 그로 인한 불만도 나타났지만, 김성근 감독은 오히려 훈련을 쫓아 오지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아무리 그 선수가 베테랑이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신예라고 하더라도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며 선수단을 확실히 장악하는 결단을 택했다.

또한 경기에서의 선수 운용 또한 선수들에겐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김성근 감독은 이기는 야구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펜투수들을 투입하면서 상대 타자에게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상대 타자의 타구스타일이나 특성에 따라 그에 대비하기 적당한 투수를 등판 시켜 대응했고, 여러 위기상황에서 김성근 감독의 전술은 빛을 발했다. 하지만 전술의 특성으로 인해 투수들은 다른 구단에서 보다 훨씬 많은 이닝을 소화하게 되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김성근 감독 프로 커리어의 시작인 OB베어스 시절부터 최소 한 명씩 혹사로 인해 고생하는 선수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무릎 연골이 다 사라져 등판마다 고통을 겪는 선수도, 어깨수술로 재활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선수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기 은퇴를 하는 선수도 있었다.

이러한 김성근 감독의 선수단 운용과 관리는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다른 감독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불펜을 운용하고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점을 보이지만 감독 교체 이후 구단에 많은 부상자가 남아 이후 커리어에 문제를 겪는 선수들 또한 넘쳐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혹사하니깐 불쌍하다고 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선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프로세계 속에서 불쌍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김성근의 야구 : 데이터 야구와 사단

김성근 감독은 한국 야구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야구를 추구했다. 선수들을 운용하고 경기의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선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적용함에 있어 김성근 감독은 기록원들이 뽑아준 자료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경기를 보면서 작성하고 분석해 실전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상대보다 강하지 않은 전력으로도 압도하는 모습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 이후 한국 야구에서는 데이터 야구를 도입하는 구단이 늘어나는 등 야구 패러다임에 있어 “선봉자”의 역할을 해왔다⁷.

이러한 특색 있는 야구 성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김성근 감독은 일명 ‘김성근 사단’을 조직해 구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주로 과거에 속했던 구단에서 함께 일한 코치와 스태프들이 이 사단에 속하게 되는데 김성근 감독이 새로운 팀에 정착하면 코치들이 따라 오는 식으로 사단을 형성한다. 때로는 김성근 감독이 팀을 떠나면 코치들이 해당 팀을 뒤따라 떠나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하는데, 김성근 감독의 아들인 김정준이 한화 이글스 전력분석 코치로 임명되는 모습은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김성근 사단은 없다. 단지 필요성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것 뿐”

코치진의 구성은 타팀과는 다르게 일본인 코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SK시절 투수코치, 배터리 코치, 타격 코치와 다른 팀에는 없는 ‘코디네이션 코치’라는 보직을 만들어 모두 일본인 코치들을 기용했고, 한화로 옮긴 후에도 일본인 코치를 4명 추가 영입하며 확실한 선호를 보여주었다. 기존 구단들은 외국인 코치들을 그들의 역량이 가지는 이점보다 코치진과 감독과의 소통 문제로 데려오는 데에 불편함을 겪지만 김성근 감독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일본인 코치들을 기용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성근의 야구 : 구단 프런트와의 갈등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색깔이 확실한, 감독 중심의 야구를 지향했다. 커리어 내내 수 많은 구단을 거쳐오는 동안 그는 항상 구단에게 감독의 전권을 요구했다.

⁷ 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징크스에 집착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 ‘징크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야구는 감독이 한다. 프런트의 역할은 지원 거기까지다.”

-김성근 감독의 인터뷰 중

김성근 감독의 지론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선수 영입과 방출에 대한 모든 인사권한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그가 맡은 구단들은 선수를 데려 오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해야 했다. 1997년 쌍방울 레이더스가 8개 구단 중 연봉총액 1위를 기록한 일, 삼성 라이온즈가 1991 시즌을 앞두고 7명의 현금 트레이드를 포함하여 김성근 감독이 요구한 15명의 선수를 영입해 다른 KBO구단들과 갈등을 빚은 일들이 대표적인 그 사례이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전권을 요구한 만큼 프런트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대립각을 세웠다. 선수 영입, 방출 혹은 육성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성근 감독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프런트와 협상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프런트가 반대하는 선수의 트레이드 또한 이뤄졌다. 프런트와의 마찰이 발생하면 김성근 감독은 구단주와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프런트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항상 그 끝에는 경질이 있었다. 그렇게 김성근 감독은 고등학교, 한국 및 일본 프로야구 감독의 커리어 동안 총 11번의 경질을 당했고 11번의 감독 취임을 하며 12개의 구단을 거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김성근과 한화 이글스”

부임 직후와 2015 시즌 준비

다 약하다, 특히 체력이 너무 약하다.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체력을 안배하면서 해줬지 않나 싶다. 레귤러는 없다. 외야의 어깨가 약한 것은 던지는 방법을 잘 몰라서다. 오늘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

- 취임 후 11월 12일 한 매체와 김성근 감독과의 전화통화 중

김성근 감독은 선수단 전원에게 이발 및 면도를 지시하고 1루수였던 김태균에게 “내일부터 3루에서 반쯤 죽을 것이다”라 발언하며 선수들의 정신 개조와 강한 훈련을 예고했다. 예고 대로 11월 1일 실시된 첫 공식 훈련에서 한 시간 만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방전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김태균 선수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스케줄” 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당시 최하위라는 순위의 문제점을 찾고자 했던 팬들이 강한 훈련을 통해 기존 선수진의 경기력 문제를 해소시켜 줄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새롭게 맞을 시즌에 대해 기대감을 키워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훈련 및 선수 관리를 위해 새로 영입된 코치들은 김성근 감독과 함께 생활을 했던 김광수 수석코치, 박상열 투수코치, 아베 오사무 타격코치 등 일명 김성근 사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 된 이후에도 니시모토 다카시 투수코치, 쇼다 고조 타격코치 등 일본 프로야구의 레전드급 선수 출신 코치들, 김성근 감독과 LG 트윈스 시절을 함께 했던 김재현 전 해설자와 김정준 등을 영입하여 김성근 사단을 완성시켰다. 이에 따라 강석천, 송진우 코치 등등 한화 이글스의 영구결번 레전드 3명을 포함한 기존의 코치들과 재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구단 인사 또한 기존 김성근 감독의 한화 부임 추진 약속을 어겼던 한화 프런트의 수장이었던 정승진 대표이사를 대신해 김충범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구단 전체가 김성근 감독을 전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갔다.

한편 선수 영입의 측면에서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의 빈약함이었다. 2014년 한화 이글스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6.35로 이전 시즌 평균자책점⁸ 최하위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는 수치였다. 이 상황에 대해 김성근 감독은 신입 투수를 기용하기 보다 기존의 검증된 투수를 영입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김성근 감독의 사상 첫 FA시장 영입으로 권혁을 4년 총액 32억원이라는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SK 와이번스 시절을 함께한 송은범과 삼성 라이온즈 출신 배영수를 영입하였다. 외국인 투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 오기 보다는 리그에서 검증된 세인 유먼과 미치 탈보트를 영입하며 시즌을 준비해갔다.

이러한 투수진 영입에 대해 구단 내외에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했다. 권혁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유망주로 주목받던 포수 김민수를 삼성에 넘겨주게 되었다. 송은범과 배영수의 경우에는 이보다 심한 논쟁이 이어졌다. 투수 송은범의 경우 SK 와이번스에서 김성근 감독과 함께하던 시절을 제외하고 보면 2년간 7점대의 평균 자책점이라는 낮은 성적을 보인 자원이었고 배영수의 경우에도 삼성에게 연봉의 300%를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데려온 데에 비해 전 시즌에는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성근 감독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함께했고, 김성근 감독이 직접 선택한 투수들이 그의 감독 역량 하에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다.[Exhibit 2]

2015 시즌 [Exhibit 3]

김성근 감독 체제에 대한 신뢰와 응원 속에서 프로야구 '15시즌의 시범경기⁹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자체의 성적은 처참했다. 한화 이글스는 2승 8패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이후 리그 개막 이후인 3월에는 4승 10패, 4월에는 10승 12패를 비롯해 다소 부진한 시즌 출발을 보냈다. 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으나, 4월 성적이 비교적 상승하여 5위로 마감했고 몇몇 경기는 기존의 무기력한 한화 경기와는 다르게 치열한 경기를 펼치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것은 김성근 감독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과 선수 영입, 용병술의 결과로도 보여졌다.

⁸ 투수의 대표적인 평가지표 중 하나로 (자책점 x 9 / 투구이닝)으로 계산한다.

⁹ 본격적인 패넌트레이스에 앞서 각 팀의 연습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상대 구단과 진행하는 비공식 경기.

다만 투수진 혹사와 관련하여 휴식을 고려하지 않은 투수 등판에 대한 외부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시즌 시작 이전 투수 이태양은 감독 지시에 의한 무리한 훈련으로 시즌 아웃 되었고, 시즌 시작 이후 투수 권혁은 22경기 중 13경기를, 투수 안영명은 출전 이후 단 하루의 휴식을 가지고 선발등판 하는 등 혹사를 방불케 하는 투수기용이 이어졌다. 그 결과 투수 윤규진은 어깨통증으로 2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전력 이탈도 다소 발생했다.

5월 이후 한화는 3위까지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6~7위에 수렴했다. 객관적 승률은 5월에 못미쳐 저조했지만 경기 내용은 팬들의 열광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5월에 승리한 13경기 중 역전승이 9경기에 달하고 세이브 요건을 고려한 3점 차 이내의 승부는 27경기 중 16경기에 달했다. 팬들에게 한화 이글스라는 만년 최하위 팀이 순위와 같은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역전승의 짜릿함을 느끼게 해 주고 지더라도 어쩌면 좋은 경기력으로 역전할 지 모른다는 기대를 주는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리한화'라는 별명에서처럼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 한 팀과 김성근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7월까지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혹사 우려는 경기의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4월과 마찬가지로 권혁은 5월 14경기, 6월 14경기, 7월 12경기로 매달 절반에 가까운 등판 기록을 보여줬고 안영명 또한 5월 주 3회 선발을 보여주는 등 팀 에이스들에게 살인적인 일정이 이어졌다. 두 선수에 대한 체력우려가 커지고 있던 때에 7월이 되자 외국인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이면서 어깨통증으로 2군에 내려간 유민은 방출되었고 탈보트는 부진에 허덕이며 2군 경기에 나서야 했다. 타자들도 부상의 늪에서 예외일 수 없었는데 5번 타자 김경언은 5월 복숭아뼈 부상,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종환은 인대파열, 에이스 김태균은 월말 손가락 통증 등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경기 내용과는 다르게 선수들의 생명을 건 무리한 경기 출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화의 기존 구단특성과 다르게 김성근 감독에 의한 트레이드가 상당수 진행되었는데, 5월 초 한화의 유창식, 김광수(이상 투수), 노수광, 오준혁(이상 외야수)와 이종환을 기아의 선수 3명과 트레이드 하는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는 김성근 감독의 즉시 전력감을 중요시하는 운영 철학으로 인한 트레이드로 자신의 트레이닝 지론에 맞지 않는 선수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다만 즉시전력감이나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 선수들의 판단 기준에 감독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는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리그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즌 초에 제기된 우려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투수진이 가장 큰 문제를 보여줬는데, 시즌 초부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던 권혁은 8월 리그경기 소화 중 탈진하여 휴식이 절실해지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판 일정은 이어졌고 결국 9월 피안 타율¹⁰ 0.423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보여주게 된다. 마무리 투수 윤규진은 부상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투수들의 부담 또한 가중되었다. 비단 투수들 뿐만 아니라 내야수 김태균과 이종환도 부

¹⁰ 해당 투수가 상대한 타수에 대해 맞은 안타의 비율

상에 시달리며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져 5월에 있었던 트레이드에 대한 결과도 부정적이었는데, '비 즉시 전력감'이었던 투수들이 트레이드 되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구단 내외에서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결국 한화는 8월에만 5연패 그리고 7연패를 연달아 당하며 김성근 감독의 경기 운용이 본격적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9월에도 5연패를 당하는 등의 부진의 연속은 결국 5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8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시즌 종료 직전 약간의 만회를 통해 6위라는 성적표로 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 체력 소모를 떠나 경기력이 향상 중이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고 한화 팬들이 팀의 야구 스타일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성적 또한 꼴찌에서 벗어나 10구단 체제의 시작을 감안하더라도 직전의 김응용 감독 시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달성했다[Exhibit 4].

2016 시즌 준비

2015 시즌을 마무리한 후,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장민석, 기아의 차일목, 넥센의 송신영을 영입하고 FA시장에서는 불펜 투수 정우람과 심수창 그리고 박한길을 영입해 팀의 전력을 보강했다. 좋은 성적을 거뒀던 내부 FA 선수들 김태균, 조인성과도 재계약 하면서 전력 누수를 최소화 하였고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투수 로저스와 마에스트리 그리고 로사리오를 영입한다. 이 과정에서 투수 심수창은 싼 가격에 데려 오긴 했지만 보상 선수로 넘긴 박한길이 94년생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젊은 투수 유망주였다는 점, 재계약 및 새로 영입한 이들 7명의 국내 선수가 모두 30대의 노장 선수라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들인 것으로 즉시 전력감을 선호하는 김성근 감독의 강력한 의지와 그에 대한 구단의 전폭적인 지지가 맞물린 결정이었다.

한편 한화 구단은 투수코치 니시모토 다카시, 타격코치 아베 오사무, 배터리코치 후루쿠보 겐지 등 6명과 재계약을 포기했다. 김성근 감독 부임 후 함께 데리고 온 일본인 코치 5명 중 쇼다 고조를 제외한 전원이 사실상 경질 된 것으로 당시 김성근 감독 체제에 대한 구단의 강력한 경고로 보였으나, 이후 일본 닛폰햄 파이터스 출신 미야모토 요시노부 코치, 오키 야스시 코치와 오릭스 출신 바바 토시후미 코치를 더 영입하는 등 계속되는 일본인 코치 영입으로 인해 기존의 코치 경질이 김성근 감독에 대한 경고보다는 김성근 사단 내의 자원 교체와 강화를 위한 시도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김성근 감독은 마치 그를 둘러싼 흑사논란에 반응한 것처럼 시즌이 끝난 후 마무리캠프 선수 인원과 훈련의 양을 줄였다. 지난 시즌 김성근 감독 하에서 훈련이 모자라다 싶은 선수들이 강제로 불러 나와 훈련하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시즌 마무리캠프에서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부상으로 재활 중인 선수들도 마무리 훈련에 데려와 재활 조를 곁에 두고 지켜봤지만 1군 풀타임 시즌을 소화한 권혁, 안영명, 송창식, 강경학

등은 부상 및 재활 선수들과 함께 연고지인 대전에서 회복훈련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2015년 시즌 내 혹사된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하고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성근 감독은 마무리 캠프 이후, 전 시즌보다 연습 강도가 작년엔 비해 적음에도 부족하고 선수들의 열망이 행동이나 의식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기며 다시 직접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어느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 인가.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만한 경기 수, 이닝 수의 투수들이 없냐고? 많다. 우리나라가 유독 민감하다. 보통 가정집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집안에서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

-2016년 스프링캠프 직후, 투수진 혹사에 관한 김성근 감독 인터뷰 중

이와 함께 선수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년에 많이 던졌다고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Exhibit 5].

2016 시즌 [Exhibit 6]

시즌 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화 이글스의 시즌 전망은 좋은 편이었다. 불펜 투수에 집중되어 있어 선발 자원이 부족해 보였으나, 기존 로저스와 안영명의 꾸준한 활약, 배영수의 부활 그리고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마에스트리의 활약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화는 시즌이 시작되자 4월 중간 7연패를 포함한 6승 17패라는 전년도와 대비되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다. 4월 14일에 투수 송창식은 1경기 12실점을 하여 15점차 패배라는 굴욕을 당했고, 이외 경기에도 외국인 투수를 포함한 선발 투수진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는 4월 내내 김성근 감독의 투수 조기강판으로 인해 불펜 투수진의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투수들이 하루 등판 이후 다음날 연속으로 등판할 경우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김성근 감독의 판단으로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4월 14일 경기 중반에 어지럼증으로 감독석을 비우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후 언론보도에서 김성근 감독의 몸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판단이 나와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일명의 ‘불통 리더십’으로 각종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회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2015년 시즌엔 기용되어 2군으로 내려갔던 고바야시 세이지 투수코치가 의사소통 문제로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기사에는 고바야시 세이지 코치가 그동안 팀 운영에 대해 여러 이견을 제시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떠

나면서 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김성근 감독의 선발 투수 기용과 일부 코치의 월권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후 김성근 감독의 아들인 전력분석코치 김정준이 스프링캠프에서 투수코치의 권한을 월권해 외국인 투수 로저스의 투구 자세를 교정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경기력 면에서도 김성근 감독이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고, 선발 투수들이 경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투수진 전체에 걸리는 과부하가 크다고 언급하며 선수를 키워 쓰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존 김성근 감독의 선수영입 방침과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투수 기용문제[Exhibit 7]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6, 7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권혁의 활약으로 팀의 성적은 향상되었지만 8월 23일 무리한 투구로 시즌아웃 되면서 10월 15일 뼈조각 제거를 위한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된다. 이후 기사에서 권혁이 시즌 중 더 이상 던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이 무통 주사를 맞으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1군에서 던질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구단 내 투수 혹사가 현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다.

결국 2016년 7월 7위로 마감한 이래, 8위로 내려갔다가 마지막 스퍼트로 시즌을 7위로 마감한다. 승률은 이전 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투수 혹사 및 감독의 독단적인 팀 운용 등 팀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투수 혹사 부분이 드러나 2년 간 팀 평균 자책점이 10개 구단 중 9위를 기록하였다[Exhibit 8].

2017 시즌 준비

흔히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부임하고 세 번째 시즌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즌이라고 불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즌은 감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전술에 맞게 선수를 영입하며 훈련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감독을 지지하는 여론이 크다. 하지만 세 번째 시즌부터는 '약속의 시즌'이라 일컬어지듯, 이전까지 감독의 적응과 노력의 결과화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시즌이다. 약속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인내하던 여론이 모두 적으로 돌변하는 건 관례 같은 일이고, 세 번째 시즌에 감독의 중도 경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근 감독도 꼭 성적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김성근 감독을 힘들게 했다. 먼저 한화 구단 프런트는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한 박종훈 본부장을 새로이 단장으로 영입했다. 박종훈 단장은 NC에서 체계적 시스템으로 어린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성장시켰던 경력이 있었는데, 한화 구단 프런트 역시 이러한 육성을 기대한 선택이었다. 이는 항상 선수들의 육성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던 김성근 감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었다. 결론적으로 한화 구단에서 김성근 감독의 권한을 1군 운용으로 축소하고 견제한 것이다.

또한 다음 시즌에 고액 연봉자 5명이 FA가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제한이 생긴 한화 이글스는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부상으로 신음하는 한화 선수단에서 운용의 폭을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는 과정 또한 난항을 겪는데, 새로 들어온 박종훈 단장이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김성근 감독의 혹독한 코칭 스타일에 난색을 표하는 에이전트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결국 2월 말 늦게서야 카를로스 비야누에바와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단을 확정할 수 있었다. 당시의 타 구단에 비해 선수단 면면은 전혀 떨어지지 않지만, 항상 급격한 기량 하락의 우려가 있는 노장선수가 많다는 점이 김성근 감독의 선수운용이나 혹독한 훈련과 맞지 않다는 확률이 높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었다[Exhibit 9].

2017 시즌

온갖 악재 속에서 출발한 시범경기는 처참한 성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8연패 후 간신히 1승을 거둬 1승 8패의 초라한 시범경기 결과를 받아 든 한화 선수단은 성적에 대한 압박, 구단 프런트와 감독의 불화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등 외우내환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성근 감독은 초지일관한 태도를 보였다.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부상을 초래한다는 2년간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성근 감독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였고, 새로 들어온 박종훈 단장과 선수단 운용 및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시즌이 개막한 직후 기존의 많은 의문과는 다르게 투수들의 호성적과 함께 한화 이글스는 순항했다. 투수들의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QS¹¹에서 개막 후 8경기 리그 전체 1위 성적을 거둔 것이다. 김성근 감독도 선발 투수의 경기 내용에 발맞춰 보다 일반적인 투수 운용을 보이며 혹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타자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해 경기 내용보다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전체 타율은 0.277로 4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나, 득점권에서 빈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시즌 초반부터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이탈이 연이어 나타났다. 이용규, 권혁, 로사리오, 김태균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시즌 초를 함께 하지 못한 선수들이 7명을 넘었다. 투수진과 타자진 골고루 부상을 당하며 한화 이글스는 시즌 초 정상적으로 경기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근 감독은 보다 냉정해진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다. 김성근 감독 체제의 고질적인 부상이 시즌 한 달도 되지 않아 한화 선수단에 집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선수단의 집단 부상은 갑작스러운 불운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의 운용 스타일에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평균 연령 31세로 노장 선수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선수단 특성 상 김성근 감독이 유연하게 경기 및 훈련 운용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다.

¹¹ Quality Start의 약자로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의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 상대방에게 3점 이하의 자책점을 허용한 경기의 횟수를 의미.

“김성근 감독의 경질”

5월에도 선수단은 6명이 넘는 선수들이 부상에 허덕였다. 다행히도 장기 부상의 경우는 적었지만 4월을 포함하여 1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장과 병원을 오가야 했기에 선수 본인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일 수 없었으며, 감독도 경기를 치루는 것이 버거울 수 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성근 감독은 2군 선수들을 1군 경기에 콜업(Call-Up)시키는 상황에서 구단 프런트와 큰 갈등이 생겼다. 선수 육성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박종훈 단장이 2군 선수관리를 시스템 하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5월에 한화가 리그 최하위권인 8위와 9위 사이에서 맴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5월 2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났고, 직후에도 선수들을 추스르는 대신 어김없이 야간 특별훈련을 지시하며 구단과의 마찰을 일으켰다. 인내심이 바닥난 구단은 결국 시즌이 시작한지 불과 두 달도 되지않은 5월 23일 김성근 감독을 경질한다.

선수와 감독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화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경질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김성근 감독을 비판하는 팬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이번 벤치클리어링 사건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다. 또한 구단 프런트에서도 새로운 기조로 등장한 장기 운용 시스템 구축과 김성근 감독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서 한화 이글스가 내린 결단은 김성근 감독의 경질이었다.

“김성근 이후의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이 경질되고 3주 후,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선발되었다. 이상군 감독 대행은 김성근 감독 기간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선수 운용과 훈련에 대해서 리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시도하며 팀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시도했다. 또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론은 한화가 이기는 야구 중심의 윈 나우(Win-Now)가 아닌 리빌딩(Re-Building)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한화는 연패에서 벗어나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상군 감독 대행은 불안한 감독 보직과 짧은 적응 기간, 부상으로 인한 전력 이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성적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음과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 역시 남은 기간 동안 보여주지 못하며 2017시즌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케이스 관련 질문

Q1. 케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김성근 감독 부임 이전 한화 이글스가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유는?

Q2. 김성근 감독을 케이스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이론과 피드백 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여라.

Q3. 김성근 감독을 방출한 한화의 선택은 옳았는가?

Exhibit 1) 한화 이글스 역대 FA 및 신인 드래프트 기록 (김성근 감독 부임 이전)

한화 이글스 역대 FA	
2000	송진우 3년 7억원 (잔류)
2001	장종훈 3년 7억원, 옵션 : 연간 5000만원 (잔류) 강석천 3년 5억 1000만원, 옵션 : 연간 3000만원 (잔류)
2003	송진우 3년 18억원 (잔류)
2005	오봉욱 2년 3억원 (잔류)
2006	송진우 2년 14억원, 옵션 2억원 (잔류) 김민재 4년 14억원, 옵션 1억원 + 은퇴후 코치직 보장, 보상선수 : 정병희 (영입)
2007	권준현 3년 8억 5000만원, 옵션 : 5000만원 (잔류)
2009	이영우 1년 2억 1000만원 (잔류)
2010	강동우 1년 3억원 (잔류)
2012	신경현 2년 7억원 (잔류) 김태균 1년 15억원 (잔류) 송신영 3년 13억원, 보상선수 : 나성용 (영입)
2013	마일영 3년 8억원 (잔류)
2014	박정진 2년 8억원, 옵션 1억원 (잔류) 한상훈 3년 13억원, 옵션 2억원 (잔류) 이대수 4년 20억원, 옵션 2억원 (잔류) 이용규 4년 67억원, 옵션 7억원, 보상선수 : 한승택 (영입) 정근우 4년 70억원, 옵션 7억원, 보상선수 : 현금보상 (영입)
2015	김경언 3년 8억 5000만원 (잔류) 권혁 4년 32억원, 옵션 4억원, 보상선수 : 김민수 (영입) 송은범 4년 34억원, 옵션 4억원, 보상선수 : 임기영 (영입) 배영수 3년 21억원, 보상선수 : 현금보상 (영입)
2016	김태균 4년 84억원 (잔류) 조인성 2년 10억원 (잔류) 정우람 4년 84억원, 보상선수 : 조영우 (영입) 심수창 4년 13억원, 보상선수 : 박한길 (영입)

한화 이글스 역대 신인 드래프트 기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차 1R	조규수	김태균	신주영	안영명	김창훈	윤근영	유원상	장필준 최진호
2차 1R	이범호	김백만	유혜정	장순천	송창식	양훈	류현진	김혁민
2차 2R	전난수	유영민	정병희	윤규진	최진행	전현태	양승진	최연오
2차 3R	권영근	서창호	정구연	맹진국	박노민	윤현민	정범모	김강
2차 4R	고동진	박정근	임재청	최민준	정재원	김동영	신해수	김경택
2차 5R	조문기	백승룡	송혁	박성덕	김용국	PASS	장병탁	서정
2차 6R	조영민	이화준	최주녕	김동훈	PASS	PASS	임기범	손재윤
2차 7R	허진석	최대곤	김경선	양승아	PASS	PASS	김성환	장동용
2차 8R	김상엽	한정석	김태완	박대원	PASS	PASS	PASS	정경수
2차 9R	이창훈	김현우	변정민	정민혁	PASS	PASS	PASS	PASS
2차 10R	방진호	이규민	송광민	X				
2차 11R	조윤채	최준원	안영진					
2차 12R	이상현	오재필	연경흠					

Exhibit 2) 2015 시즌 한화 이글스 1군 초기 주요 선수 및 코치

선수				코치	
투수	47 권혁	내야수	14 강경학	수석코치	김광수
	64 김민우		52 김태균	투수코치	나시모토 타카시
	22 이태양		8 정근우		
	37 배영수	외야수	7 송광민	타격코치	쇼다 코조
	46 송은범		51 김경언		아베 오사무
	1 유창식		15 이용규	배터리코치	김재현
	45 안영명		5 정현석		신경현
	48 탈보트		25 최진행	전력분석코치	김정준
	55 윤규진		58 노수광		
	42 유면	34 오준혁			
		포수	44 조인성		
			12 차일목		

Exhibit 3) 2015년 한화 이글스 경기결과 (월별로 정리됨)

3월(14경기 4승 10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승(vs LG)
8 패(vs LG)	9	10	11 패(vs SK)	12 패(vs두산)	13 승(vs두산)	14 패(vs NC)
15 패(vs NC)	16	17 패(vs넥센)	18	19 패(vs롯데)	20 패(vs롯데)	21 패(vs삼성)
22 승(vs삼성)	23	24	25	26	27	28 패(vs넥센)
29 승(vs넥센)	30	31				

4월(22경기 10승 12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패(vs두산)	2 패(vs두산)	3 패(vs NC)	4
5 패(vs NC)	6	7 승(vs LG)	8 패(vs LG)	9 승(vs LG)	10 패(vs롯데)	11 승(vs롯데)
12 패(vs롯데)	13	14 승(vs삼성)	15 패(vs삼성)	16	17 승(vs NC)	18 승(vs NC)
19	20	21 패(vs LG)	22 승(vs LG)	23 패(vs LG)	24 승(vs SK)	25 승(vs SK)
26 승(vs SK)	27	28	29 패(vs KIA)	30 승(vs KIA)		

5월(27경기 13승 14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승(vs롯데)	2◆ 승(vs롯데)
3◆ 패(vs롯데)	4	5★ 승(vs KT)	6◆ 패(vs KT)	7◆ 패(vs KT)	8★ 승(vs두산)	9◆ 패(vs두산)
10 패(vs두산)	11	12★◆ 승(vs삼성)	13◆ 패(vs삼성)	14◆ 승(vs삼성)	15◆ 패(vs넥센)	16◆ 패(vs넥센)
17★◆ 승(vs넥센)	18	19◆ 패(vs SK)	20◆ 패(vs SK)	21 승(vs SK)	22 승(vs KT)	23★ 승(vs KT)
24 패(vs KT)	25	26 패(vs KIA)	27★ 승(vs KIA)	28★◆ 승(vs KIA)	29 패(vs롯데)	30★◆ 승(vs롯데)
31 패(vs롯데)						

8월(24경기 9승 15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30 승	7/31 패(vs KIA)	1 패(vs KIA)
2 패(vs KIA)	3	4 패(vs SK)	5 패(vs SK)	6 승(vs LG)	7 패(vs LG)	8 승(vs롯데)
9 승(vs롯데)	10	11 승(vs KT)	12 승(vs KT)	13 패(vs넥센)	14 패(vs넥센)	15 패(vs삼성)
16 패(vs삼성)	17	18 패(vs NC)	19 패(vs NC)	20 패(vs KT)	21 승(vs KT)	22 승(vs KIA)
23 패(vs KIA)	24	25	26 승(vs삼성)	27 패(vs NC)	28 승(vs NC)	29 패(vs두산)
30 패(vs두산)	31					

9월-10월 정규 시즌 마감(26경기 11승 15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승(vs KIA)	2 패(vs KIA)	3 패(vs넥센)	4 패(vs넥센)	5 승(vs두산)
6 승(vs두산)	7	8 패(vs LG)	9 패(vs LG)	10 패(vs SK)	11 패(vs SK)	12 패(vs롯데)
13 승(vs롯데)	14	15 승(vs KIA)	16 패(vs KIA)	17 패(vs NC)	18 패(vs NC)	19 승(vs두산)
20 패(vs두산)	21	22	23	24	25 승(vs넥센)	26 승(vs넥센)
27	28 패(vs NC)	29 승(vs삼성)	30 승(vs삼성)	10/1 패(vs넥센)	10/2 승(vs LG)	10/3 패(vs KT)

Exhibit 4) 한화 이글스 정규 시즌 역대 성적 주요 항목 (2009년 ~ 2015년)

연도	순위	경기	승	패	무	승률
2009	8	133	46	84	3	0.346
2010	8	133	49	82	2	0.368
2011	6	133	59	72	2	0.459
2012	8	133	53	77	3	0.408
2013	9	128	42	85	1	0.331
2014	9	128	49	77	2	0.389
2015	6	144	68	76	0	0.472

Exhibit 5) 2016 시즌 한화 이글스 1군 초기 주요 선수 명단

선수			
투수	47 권혁	내야수	14 강경학
	64 김민우		52 김태균
	22 이태양		8 정근우
	37 배영수		7 송광민
	46 송은범		40 윌런 로사리오
	31 송창식		51 김경언
	57 정우람	외야수	15 이용규
	1 심수창		5 정현석
	42 로저스		25 최진행
	45 안영명		44 조인성
	48 마에스트리	포수	32 차일목
	55 윤규진		

Exhibit 6) 2016년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

2016년 4월(23경기 6승 17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패(vs LG)	2 패(vs LG)
3	4	5 승(vs넥센)	6 패(vs넥센)	7 패(vs넥센)	8 패(vs NC)	9 패(vs NC)
10 승(vs NC)	11	12 패(vs두산)	13 패(vs두산)	14 패(vs두산)	15 패(vs LG)	16
17 패(vs LG)	18	19 패(vs롯데)	20 패(vs롯데)	21 승(vs롯데)	22 패(vs두산)	23 패(vs두산)
24 패(vs두산)	25	26 승(vs KIA)	27	28 승(vs KIA)	29 승(vs삼성)	30 패(vs삼성)

2016년 6월(24경기 13승 1무 10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패(vs SK)	2★ 승(vs SK)	3★ 승vs(삼성)	4 승(vs삼성)
5★ 승(vs삼성)	6	7★ 패(vs KIA)	8 승(vs KIA)	9 패(vs KIA)	10★ 승(vs LG)	11★ 패(vs LG)
12★ 승(vs LG)	13	14★ 패(vs KT)	15	16★ 패(vs KT)	17★ 승(vs넥센)	18 패(vs넥센)
19 패(vs넥센)	20	21★ 승(vs NC)	22	23★ 무(vs NC)	24 패(vs롯데)	25★ 승(vs롯데)
26 패(vs롯데)	27	28★ 승(vs넥센)	29 패(vs넥센)	30★ 패(vs넥센)		

2016년 7월(21경기 12승 1무 8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패(vs두산)
3	4	5	6 승(vs SK)	7★ 승(vs SK)	8★ 승(vs삼성)	9★ 무(vs삼성)
10 승(vs삼성)	11	12★ 패(vs LG)	13 승(vs LG)	14★ 승(vs LG)	15	16
17	18	19★ 승(vs KT)	20★ 패(vs KT)	21 승(vs KT)	22 패(vs롯데)	23★ 패(vs롯데)
24 승(vs롯데)	25	26 패(vs SK)	27 승(vs SK)	28★ 승(vs SK)	29★ 패(vs KIA)	30 승(vs두산)
31 패(vs두산)						

Exhibit 7) 메이저 리그 표준 투수 기용 분석 표

1. 선발 투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인으로 구성되며 순서대로 닷새에 한번씩 등판한다.
 2. 마무리 투수는 보통 9회에 3점차 이내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나,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다.
 3. 셋업맨은 보통 마무리 투수와 같은 조건에서 8회에 올라온다.
 4. 좌완 스페셜리스트는 9회를 제외한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에 좌타자를 상대로만 나온다.
 5. 롱 릴리프는 선발투수가 일찍 무너졌을 때와 같이 긴 이닝이 필요한 상황에 등판한다.
 6. 스윙맨은 하위 선발 로테이션이나, 롱릴리프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 보직이다.
 7. 나머지 투수들은 각각이 갖는 특성에 맞춰 상황에 맞게 기용되는 식이다.
- * 롱 릴리프(long relief): 여러 이닝을 던져 경기를 손수 마무리하거나 마무리 투수에게 넘기는 구원 방식.
 - * 셋업맨(setup man): 야구에서 마무리투수가 나오기 직전에 던지는 투수.

위의 분석에 따르면 메이저리그는 투수진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감독이 보직 파괴를 일삼아선 안 되며, 불펜과 마무리 등의 중간 계투들은 이기는 경기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Exhibit 8) 한화 이글스 2015 ~ 2016 정규 시즌 주요 스탯 비교

연도	순위	경기	승	패	무	승률
2015	6	144	68	76	0	0.472
2016	7	144	66	75	3	0.468

항목	2015(항목 순위)	2016(항목 순위)
승패	68승 0무 76패, 승률 0.472(6위)	66승 3무 75패, 승률 0.468(7위)
팀 타율	0.271(8위)	0.289(7위)
팀 출루율	0.360(5위)	0.362(6위)
팀 장타율	0.404(7위)	0.431(7위)
팀 득점	717점(6위)	826점(4위)
팀 홈런	130개(8위)	142개(5위)
팀 도루	80개(10위)	64개(10위)
팀 평균 자책점	5.11(9위)	5.76(9위)

Exhibit 9) 2017 시즌 한화 이글스 주요 선수단 및 코치

선수			코치		
투수	1 심수창	내야수	2 임익준	수석 코치	김광수
	19 송신영		8 정근우	투수 코치	이상근
	42 비야누에바		14 강경학	투수 보조 코치	계형철
	48 오간도		13 신성현	불펜 코치	정민태
	12 이동걸		40 로사리오	타격 코치	나카시마 테루시
	31 송창식		52 김태균	타격 보조 코치	임수민
	45 안영명	외야수	25 최진행	수비 코치	이철성
	55 윤규진		15 이용규	수비 보조 코치	김정준
	17 박정진		18 이양기	3루 주루 코치	최태원
	36 장민재		53 장민석	1루 주루 코치	윤제국
	46 송은범	포수	32 차일목	배터리 코치	신경현
	57 정우람		44 조인성	감독	김성근